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TF팀’ 본격 가동

교통·숙박 등 6개 지원체계 구축
전남도·조직위와 협력 준비 총력
TF팀 첫 회의 도비 건의사업 논의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종합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실에서 TF팀 첫 회의를 열고 섬박람회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는 6개 국소단장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TF팀은 ▲총괄지원 ▲도로교통 ▲숙박·음식 ▲행사장 조성 ▲섬발전지원 ▲관광문화 및 행사지원 등 6개 분야로 운영되며, 전라남도 섬박람회 지원 TF와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행사장 환경 조성, 섬 발전 연계 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건의 과제에 논의했으며,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수시가 지난 10일 부시장실에서 세계섬박람회 종합지원 TF팀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개막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TF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 만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수시로 점검·논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기 여수부시장은 “섬박람회는 여수의 섬과

바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와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박람회를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19일부터 3일간 박람회 개최

구례군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열리며,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흙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장은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의 주제를 생동감 있게 담아낸 주제관과 40여 개의 기업관, 건강한 음식으로 약선요리를 선보이는 약선셰프의 존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플리마켓에서는 지역업체와 연계해 신선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만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도 풍성하다. 흙을 직접 만지며 생태 감각을 깨우는 흙 놀이, 텃밭 만들기,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는 테라리움 체험, 스탬프 염색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어린이과학 AI 코딩캠프 대회, 글로벌 어린이 AI 그림그리기 대회도 함께 열려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경과 농업,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풍부한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오전그린광장 도시숲.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19곳 사후관리 점검

추석 귀성객 등에 쾌적한 도시환경

순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숲 19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기후대응 도시숲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된 주요 도시숲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지는 ▲순천일반산단·울촌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경전선 폐철도, 지봉로, 여수로, 백강로 등 주요 도로변 도시숲 ▲오천지구 및 오전그린광장 기후대응 도시숲 등 총 1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자담보기간 내 사업지 하자 검사, 풀베기 점검, 고사목 발생 여부 확인, 수목 생육 상태 점검 등이며, 조성 이후 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하자 조치, 고사목 제거,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목 활착률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 공간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시민 휴식 공간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숲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봉래면 예내정수장 재건설 확정

내년부터 5년간 339억원 투입

고흥군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9억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봉래면 예내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내정수장은 나로도(봉래면, 동일면)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상수도 생산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원수 탁도 악화 시 수질 불량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최대 운송 시 가동률이 109%에 달하는 과부하 운영 등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고흥군은 정수장 시설 재설치만이 나로도 주민의 식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예내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나로도에는 1일 4천 톤 규모의 최첨단 정수처리시설이 설치돼, 봉래면과 동일면 일대에 안정적인 고압급수 공급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예내정수장 전면 재건설은 그동안 식수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나로도 주민에게 드리는 ‘물 복지 혁신’ 선연과 같다”며 “노후 시설을 과감히 철거하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로도 지역의 생활 환경과 정수 여건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나로도(동일면)와 외나로도(봉래면)를 통합해 부르는 나로도라는 지명인 2022년 누리호 발사로 주목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하며, 축섬, 봉래산 편백숲, 생활 낚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나로도항 등 주요 관광지를 갖춘 총인구 3,198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앞으로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는 발사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흥 국가산업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6521억원 규모의 ‘고흥-봉래 간 4차선 확장공사’ 추진도 확정돼 향후 나로도가 고흥군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시가 디지털배움터 체험존에 도입한 ‘AI바둑로봇, 해피테이블’을 통해 시민들이 오목을 두고 있다.

광양시, AI바둑로봇·해피테이블 추가 도입

광양커뮤니티센터 디지털배움터에

광양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AI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광양커뮤니티센터 2층 디지털배움터 체험존에 ‘AI바둑로봇’과 ‘해피테이블’을 새롭게 도입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거점센터 3개소(광양·보성·무안)와 체험존 5개소(광양·순천·보성·무안·함평)가 운영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커뮤니티센터 2층에 거점센터와 체험존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존에는 ▲교육용 키오스크 ▲혈압계 ▲AI 눈검진기 ▲스트레스 측정기 ▲인바디 등이 설치돼 있으며, 전담가이드가 상주해 시민들의 체험을 지원한다.

이번에 도입된 ▲AI바둑로봇(오목·바둑 체험

프로그램)과 ▲해피테이블(소통·놀이·학습이 결합된 스마트 체험형 테이블)은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시민들은 인공지능 로봇과의 대국을 통해 AI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거점센터에는 강사와 보조강사가 상주해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매일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디지털정보과(061-797-2462)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 헬프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헬프가이드가 상주해 휴대폰·키오스크·전자기기 사용 등 생활 속 디지털 문제 해결을 지원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은미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광양 디지털배움터 체험존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